

電力技術의 느티나무

남 정 일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장)

2000年代를 눈 앞에 둔, 더우기 國際적으로도 多角的인 外交가 활발히 進行되어 여러모로 交流의 幅이 한층 넓어지기 시작한 지금의 時點에서 앞으로 電氣學會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더우기 企業體 研究集團의 運營 責任을 맡고 있는 筆者로서는 未來의 學會位相이나 役割에 대하여 많은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 만큼 바라는 바 期待가 적지 않다. 요즈음은 점차 모습이 사라져 아쉽지만 버스여행을 하다보면 아직도 여러 곳에서 마을 어귀에 우뚝선 느티나무를 보게되는 기쁨이 있다. 누가 와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이며 모든 일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곳, 그러한 되새김으로 하여금 새로움을 깨달아 다시 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곳, 때에 따라서는 이정표이기도 한 느티나무의 표나지 않고 앞서지 않는 強韌함과 受容力, 그것이 來日을 向하는 電氣學會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電力技術人的 느티나무, 企業體에 몸담은 立場의 筆者에게는 더욱이나 그러한 바람이 크다. 혹은 자기전문분야에 집착하여 좁아 질 수 있는 現場에 새롭고 바른 電力技術의 이정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電氣學會, 多樣한 가치를 갖지만 끈끈한 技術의 指標를 보여 줄 學會, 명실상부한 產學交流와 分野別交流의 場, 이러한 모습이 筆者가 생각해 보고 싶은 來日의 學會像이다. 이러한 學會像의 具體的인 몇몇 모습에 대한 筆者의 생각을 紙面의 限界內에서 간단히 피력해 보기로 한다.

첫째, 停電 cost 調査評價, National Energy Model 開發, 次期超高壓昇壓, 超電導技術開發, 超高速電鐵, Robotics 및 AI應用等 電力關聯分野의 國家的 戰略事業에 對한 發議및 諮問集團役割이다. 分野別로 學會主管의 汎國家的 task force 性格의 專門委를 構成하여 先進情報 調査分析이나 長期戰略展望을 通하여 對 집행기관(정부 또는 關聯產業體)에 對한 建議機能이나 產業體 發展戰略諮問機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產業體에 對한 再教育機能을 들고 싶다. 上記 專門委를 中心으로 既存技術이나 新技術에 대한 分野別 tutorial course를 定期化하여 產業體 專門人力에 對한 再教育 機會를 부여하고 그 教材는 韓國型 電力技術의 technical Standard로 發展시켜 長期的으로는 產業體로 하여금 技術의 標準化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電力技術 Standard 開發 및 管理事業 또한 學會主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國際交流 多邊化에 맞춘 電氣學術活動의 國際化이다. 모든 分野에 대한 國際化 努力은 여러모로 어려운 것이므로 우리나라 대로의 重點分野를 特性化하여 關聯 學術誌및 Conference의 國際化 育成을 꾀하는 것이 學術交流의 國際化 面에서나 電力技術立國面에서 效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分野別 均等發展을 誘導하기 위한 產學調整 役割이다. 近年에 와서 技術人力의 觀心이 소위 尖端分野에 集中되어 電力, 機器 등 產業基盤의 必須

分野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필자의 노파심인지는 모르나 電力技術이 기형적으로 成長할 우려가 보인다. 물론 必要에 依한 取舍選擇은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不均衡은 國家全體의으로 技術基盤確保面에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產學을 연계한 조정기능은 궁극적으로 政府의 몫일지 모르나 上記 次元에서 政府에 대한 건의나 電氣人 自體의 조절역할 또는 各 研究機能간의 조정자 역할등은 學會의 몫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電力生產技術에서 利用技術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기술분야를 총망라하는 電力技術 綜合化 役割이다. 現在의 研究分科委員會의 活動을 電氣化學, 電氣物理 等の 分野에 까지 細分化하고 活性化시켜 部分的 理論 追求形態를 止揚, 應用및 適用에 이르기까지 綜合의이고도 組織的인 研究活動 분위기 조성 필요하리라 본다. 學會運營의 形態面에서도 學界主管에서 產業界의 自發的인 參與에 依한 產學共同主管 形態로의 轉換도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最近 여러 方面에서 南北問題에 많은 觀心이 集中되고 있거니와 電氣分野에서도 2000年代 南北交流를 對備한 南北 電氣學界의 交流方案에 對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純粹 學術目的의 交流方案에 對한 努力은 學會의 몫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적어보았거니와 筆者의 寡聞이 一見 허황됨만 나열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도약하고자 하는 2000年代의 學會像을 생각하며 욕심을 좀 부려보는 것도 아주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學會의 構成員이 學界, 產業界에 屬한 모든 各 個人인 만큼 冒頭에 言及한바 學會가 電氣人 누구나의 느티나무 役割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電氣人 各者의 努力이 集結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된다면 筆者가 上記한 2000年代의 學會像의 實現도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學會는 獨立된 集團이기에 앞서 構成員 各者 自身이기 때문일 것이다.